

아목시실린 생산 대폭 “감소”

우평 · 대웅 · 영진 등 과당 경쟁 ... Cephems계 상대적 증가

항생물질인 아목시실린이 과당경쟁으로 수익성 악화를 초래함에 따라 시장이 크게 위축, 국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아목시실린 수요는 92년 기준 300여톤 규모로 그동안 감기약을 비롯, 후두염 · 기관지염등의 치료에 필수적인 기초 항생물질로써 고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신규기업들의 잇단 시장참여에 따른 중복투자로 제살깎기식 가격경쟁 양상을 표출,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93년도 아목시실린 총생산량은 514톤으로 92년(655톤)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업별 93년 생산량 현황을 보면 우평이 92년대비 57% 증가한 179톤(102억)을 생산해 전량 수출했다.

삼웅과의 일부 합자로 생산규모가 증가한 대웅화학은 92톤, 동화약품이 34톤을 생산해 92년대비 증가세를 보였고 그외 기업들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MOXICILLIN 생산 및 6-APA 수요현황 (단위 : KG)				
기 업	생 산		6-APA 소비량	
	1992	1993	1992	1993
우 평	102,000	178,713	60,000	102,121
대 웅	40,000	92,747	24,000	52,998
영 진	61,193	60,744	36,000	34,710
동 화	30,945	34,680	17,683	19,817
삼 웅	108,495	49,650	63,000	28,371
유 한	52,620	36,133	31,000	20,647
기 타	260,691	62,132	154,317	40,646
국내계	655,944	514,799	386,000	299,310

올해 생산목표를 110톤으로 정해놓고 있는 대웅은 아목시실린시장의 침체에 따라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주력제품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우평은 베트남에 현지공장을 설립, 생산 가동하고 있으며 현대합성도 필리핀에 생산공장을 세워 공해산업인 아목시실린의 동남아시아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영진약품도 빠르면 올해안에 동남아 지역에 현지공장을 세워 국내 생산은 줄이면서 노동력이 저렴한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종근당과 현대합성은 93년부터 아목시실린 생산을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소량 생산하는 수준으로 대폭 감소시켰다.

페니실린계 항생제의 기초원료로써 아목시실린 및 앰피실린등의 원료 중간체인 6-APA(6-Amino Penicillanic

Acid)의 국산화에 성공한 우평은 연산 300톤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월20톤을 생산, 그 중 80%는 자가소비하고 20%정도를 국내 공급하고 있다.

한편 페니실린계 항생제의 내성 발현으로 고가이지만 품질이 우수한 Cephems계의 수요가 증가, 아목시실린의 상대적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4/4/18>